

---

- 2017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  
**국외선진지 비교시찰 결과보고**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Jung-gu Council

# 목 차

I.	<b>방문목적</b>	.....	2
II.	<b>방문개요</b>	.....	2
III.	<b>방문일정</b>	.....	4
IV.	<b>기관 방문 및 시찰</b>	.....	5
	○ 북유럽 사회복지국가 (복지·노동 분야)		
	○ 노르웨이 전기자동차 (친환경 분야)		
	○ 덴마크 자전거 도로 (친환경 분야)		
	○ 상트페테르부르트 모비딕 물류회사 (해양·항만 분야)		
	○ 핀란드 Allas Sea Pool (해양·항만 분야)		
	○ 스웨덴 지방자치 (지방자치 분야)		
	○ 노르웨이 플롬~뮌르달 산악열차 (관광 분야)		
V.	<b>시사점 및 특이사항</b>	.....	33
VI	<b>연수후기 및 정책제안 [의원별]</b>	.....	38
	○ 김철홍 의장		
	○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장		
	○ 이정재 의원		

# - 2017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

## 국외선진지 비교시찰 결과보고

### I 방문목적

- 1·8부두를 비롯한 내항의 전면 개방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선진 항만과 문화자연관광 등 시설의 성공사례를 비교시찰하며, 선진국의 자연 친화적 환경 및 생태계 보존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 북유럽 국가의 복지 및 선진화 된 지방자치 제도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중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II 방문개요

- 방문기간 : 2017. 5. 14(일) ~ 5. 25(목) 【10박 12일】
- 방문국가 : 북유럽 5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
- 방문인원 : 5명

연 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1	중구의회	의 장	김 철 흥
2	중구의회	의 원	김 규 찬
3	중구의회	의 원	이 정 재
4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 경 후
5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장 지 연

○ 분야별 과제 지정

분 야	소 속	직 위(급)	성 명
복지·노동 분야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 위원장	김 규 찬
친환경 분야	중구의회	의 장	김 철 흥
	중구의회	의 원	이 정 재
해양항만 분야	중구의회	의 장	김 철 흥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 위원장	김 규 찬
	중구의회	의 원	이 정 재
지방자치 분야	중구의회	의 장	김 철 흥
	중구의회	주민복지건설 위원장	김 규 찬
관광 분야	중구의회	의 장	김 철 흥
	중구의회	의 원	이 정 재
의정활동 보좌 및 의전수행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 경 후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주사보	장 지 연

Ⅲ

방문일정

일 자	연수지역	일 정
제1일 5.14(일)	인 천	• 인천 공항 → 모스크바(SU 251)→코펜하겐(SU 2496)
제2일 5.15(월)	덴마크 (코펜하겐)	• 문화예술시설 답사 - 코펜하겐 시청사, 아말리엔보그 궁전, 인어공주 동상, 게피온 분수 등 • 코펜하겐 → 오슬로(DFDS) 북유럽대표 크루즈 탑승 - 북유럽 대표적 크루즈인 DFDS 탑승을 통하여 선진크루즈항 견학
제3일 5.16(화)	노르웨이 (오슬로/빈스트라)	• 공공시설 및 문화예술시설 시찰 - 오슬로시청사 내부 견학, 왕궁, 카를요한스 거리, 비겔란 조각공원 등
제4일 5.17(수)	노르웨이 (뢰이아/송네피요르드)	• 자연관광지 조성 사례 답사 - 빙하박물관, 송네 피요르드
제5일 5.18(목)	노르웨이 (보스/네르달)	• 베르겐 어시장 및 한자동맹 시절 건물·거리 견학 • 관광시설물 사례 및 자연보존 상태 답사 - 플롬 산악열차 탑승
제6일 5.19(금)	노르웨이 (베르겐)	• 자연관광지 조성 사례 및 보존 상태 답사 - 크뢰단 호수 주변, 툰드라 지역
제7일 5.20(토)	노르웨이 스웨덴 (스톡홀름)	• 공공 및 문화시설 시찰 - 시청사 내부 견학, 바사호역사박물관, 왕궁
제8일 5.21(일)	핀란드 에스토니아	• 관광 및 문화예술 시설 견학 - 마켓광장, allas sea pool, 네프스키 성당, 돔교회, 톰페아 성 건축양식 등 건축물 축조 사례 답사
제9일 5.2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문화예술시설 견학 - 국립에르미타주박물관(겨울궁전), 성이삭 성당, 넵스키 대로 등 문화시설 답사
제10일 5.23(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 기관 방문 -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공사 공식방문 (현황설명 청취 및 현장 견학)
제11일 5.24(수)	러시아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 모스크바(SU250) → 인천
제12일 5.25(목)	인천	• 인천도착

## IV

## 기관방문 및 시찰

## ▣ 북유럽 사회복지 (복지·노동 분야)

## ○ 연수내용

## 1. 노르딕 모델 현황 및 실제

## 가. 노르딕 모델 어원 및 특징

-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스칸디나비아 통합의 꿈은 국가 간 국제 협력이라는 다소 소극적이 목표로 바뀌었다. 일부는 실패한 야망과의 관련성 때문에, 일부는 언어가 다른 핀란드를 스칸디나비아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스칸디나비아라'라는 용어는 전쟁기간에 '노르덴'(Norden, 북쪽을 뜻하는말)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북유럽 사람을 가리키는 '노르디스크'(Nordisk, 영어로는 Nordic)라는 용어는 193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회담에서 관련 5개국 정치 지도자들이 사용했다. 노르딕 지역은 5개 독립국가(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와 그린란드, 페로섬, 올란드 제도(핀란드령)같은 자치 영토까지 아우른다.
-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스칸디나비아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있는 거대한 반도를 부르는 지형상의 용어이기도 하다. 대체로 여기에 덴마크가 추가되는데, 이들 세 나라의 문화.언어.역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는 적어도 문자로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북유럽 국가 안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지만 스칸디나비아라는 용어는 다른 지역, 특히 영어권에서는 5개국 모두를 지칭하는 노르덴과 같은 말로 사용된다.
- 스칸디나비아는 단지 부분적 합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사회주의 유토피아 또는 과도한 규제 의 악몽, 세계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사회 또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사회....., 적어도 서유럽에서 볼 때 20세기말 스칸디나비아는 실용적이고 탁월한 고급 소비재로 상징되는 '세련됨'의 전형이다. 반면 춥고 멀고 물가가 비싼 곳이라는 이미지도 여전하다.

## 나. 복지국가 분류(사회복지정책의 유형)

- 복지국가 분류는 크게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3가지이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탈 상품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유럽은 사회적 평등과 사회연대성을 위해 적극 개입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에 속한다. 조세, 임금, 복지급여 등은 보편주의에 맞춰 지급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복지국가 유형으로는 영미형, 대륙형, 북유럽형, 남유럽 형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 영미형 모델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5% 안팎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시장 친화적모형, 세금을 적게 걷으면서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선발적 복지 추구한다.
- 대륙형 모델은 국내총생산(GDP)대비 30%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며 현금 위주 지원이 많고 경제성장 정체로 고민 하는데 주로 독일 , 프랑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남유럽형 모델은 포퓰리즘 복지정책, 즉 단순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고약이 주를 이루게 되어 재정 낭비로 인한 구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대표적 국가로 그리스, 포르투갈이 해당된다.
- 북유럽형 모델은 GDP대비하여 영미형 보다 더 많은 30% 안팎을 복지 예산에 사용하는 고(高)세금, 고(高)재정지출 구조이며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이다. 영미형 보다 더 많은 비율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히려 영미형 복지모델을 취하는 국가들보다 경제 구조가 더 탄탄하고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완전고용, 균등분배,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발전하는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복지와 경제 성장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다.

○ 국가별 사회복지 지출비중 (GDP대비 %)

국가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위
호주	10.2	13.1	17.2	17.2	17.8	18.3	19.0	19.0	16
오스트리아	22.1	23.4	26.1	28.6	27.7	27.9	28.3	28.4	4
덴마크	24.4	25.0	26.0	29.9	30.1	30.2	30.2	30.1	3
핀란드	18.0	23.8	23.3	28.7	28.3	29.4	30.6	31.0	2
프랑스	20.6	24.9	28.4	21.7	31.4	31.5	32.0	31.9	1
독일	21.8	21.4	26.2	26.8	25.5	25.4	25.6	25.8	7
그리스	10.3	16.5	19.2	24.2	25.7	26.1	24.3	24.0	10
일본 (2011)	10.3	11.1	16.3	22.1	23.1	23.1	23.1	23.1	11
한국	-	2.8	4.8	9.0	9.0	9.6	10.2	10.4	17
네덜란드	24.8	25.6	19.8	23.7	23.5	24.1	24.6	24.7	9
뉴질랜드	16.9	21.2	18.9	21.0	20.7	21.0	20.8	20.8	14
노르웨이	16.3	21.9	20.8	22.4	21.8	21.7	22.0	22.0	12
포르투갈	9.6	12.4	18.6	25.2	24.8	24.8	25.8	25.2	8
스페인	15.4	19.7	20.0	26.7	26.8	27.1	27.3	26.8	6
스웨덴	26.0	28.5	28.2	27.9	27.2	27.7	28.2	28.1	5
영국	16.3	16.3	18.4	22.8	22.7	23.0	22.5	21.7	13
미국	12.8	13.1	14.2	19.3	19.0	18.7	18.6	19.2	15
한국순위	-	17	17	17	17	17	17	17	
대상 국가수	16	17	17	17	17	17	17	17	

다. 노르딕 국가의 복지 실태

1) 덴마크

- 병원비가 무료인 나라, 대학등록금도 무료인 나라, 대학생에게 매달 생활비 120만원을 주는 나라, 실직자에게 2년 동안 월급 90%를 주는 나라. 그러나 덴마크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자살률, 알코올 섭취량, 항우울제 복용량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어째서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란 말인가? 경제학자 리차드 레이어드는 ‘행복이란 좋은 감정을 느끼고 삶을 사랑하며, 이런 감정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 핀란드

- 사우나 원조, 산타나라, 첫째 10만원 둘째 13만원 셋째 15만원 17세까지 엄마 1년 아빠 3주 출산 휴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무료, 17세까지 병원비 무료, 학원 없음, 여름방학 2달 반, 환경파괴방지위해 다리건설 자제, 터널도 2차선만 건설하며, 나르달 호텔 노동자는 근무시간 짧고 2명 일하는 식당에서 서비스 능력에 맞는 식수인원 조절하는 노동존중 사회이다. 지하철 역사에 유모차를 위한 계단 설치하고 지하철에는 유모차를 지지하는 장치로 임산부 존중하는 사회이다.

## 3) 노르웨이

- 노동시간 일 7.5시간인데, 노동당에서 일 6시간 근무 추진 중이다. 점심시간이 30분이라서 도시락 문화가 주류이며, 퇴근 시간 4시이며 내년 부터 3시로 앞당긴다고 한다. 그러나 여가시간 길지만 소비문화 다양하지 않다. 집에 있는 시간 많아 인테리어 발달하고 별장도 발달했다. 전차 등 친환경적 탈것이 많고, 자전거 타기를 장려한다, 자전거 타기는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미세먼지 등 맑은 공기에 크게 기여한다.

## 4) 스웨덴

- 스웨덴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선진적 복지국가이다. 국민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다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 믿음이 있고,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 스웨덴 국민은 실직과 병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 이나마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
- 현재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국민의 집’(The People’s Home) 은 1928년 1월 18일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이었던 페르 알빈 한손이 발표했던 “집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다. 훌륭한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 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독식 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 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알아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일한다. 이런 ‘국민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 계층의 사회 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도 좋은 집이 못된다.”라고 말한 국회 연설에 들어 있던 개념이다. 페르 알빈 한손은 이후 1932년부터 1946년 까지 스웨덴의 총리로 일하면서 스웨덴 복지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스웨덴 국민의 아버지로 불리는 타게 에를란드 총리는 23년 동안 재임하면서 ‘국민의 집’을 완성했다. 1946년 그가 총리에 오를 때만 해도 스웨덴의 복지는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훨씬 모자란 수준이었지만 1969년 그가 하야 할 때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분배체계가 잘 구축된 사회로 탈바꿈 되어 있었다.

#### ○ 연금

- 소득연계연금 : 1954년 이후에 출생한 모든 근로자와 자영자, 1938~1953년 출생자는 특별경과규정 적용
- 적립식 개인연금: 모든 노동자와 자영자
- 보장연금 : 모든 스웨덴 거주자
- 소득연계장애연금 : 모든 노동자와 자영자
- 보장장애연금 : 모든 스웨덴 거주자

○ 장애인 복지정책

- 스웨덴이 장애정책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화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국가이다. 2011년 스웨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안내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의 목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IT접근 격차 해소, 기회균등, 장애인 생활시설, 자가의 개조 지원, 자동차 지원금, 취직을 위한 기회 제공이다.

○ 육아 및 보육정책

- 스웨덴의 육아 및 보육정책은 저 출산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스웨덴의 경우 적극적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부모보험제로 유급 출산 휴가를 480일까지 늘리고, 6세 교육과정을 무료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아동수당은 3~5명을 출산해서 기르면 인센티브가 더욱 늘어나는 지원체계이다.

○ 가족, 아동복지 정책

- 스웨덴 아동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부분으로 출산 후 18세에 이르는 연령대의 인구(아동)에 대한 철저한 사회적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아동학대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모든 아동은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아동보호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스웨덴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받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교육받고 있다.

- 아동 및 가족수당은 임신한 여성, 아동이 있는 부모, 입양을 한 부모에게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 수당에는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치 급여, 아동간 병 휴가 및 급여, 아동수당, 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 입양수당이 있다.

2. 북유럽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2014년 기준 OECD 34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연구)

가. 부문별 합계 순위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3 노르웨이 0.628	3 대한민국 0.778	4 덴마크 0.791
5 스웨덴 0.608	8 노르웨이 0.643	5 노르웨이 0.789
8 대한민국 0.593	21 스웨덴 0.461	10 대한민국 0.734
12 덴마크 0.561	26 핀란드 0.425	14 핀란드 0.713
22 핀란드 0.485	29 덴마크 0.372	17 스웨덴 0.665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
1 덴마크 0.856	1 노르웨이 0.770
4 스웨덴 0.749	2 덴마크 0.754
5 핀란드 0.746	4 스웨덴 0.745
6 노르웨이 0.739	8 핀란드 0.709
28 대한민국 0.402	33 대한민국 0.337

## 나. 종합순위

-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의 5개 부분별 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OECD 가입국의 종합적인 복지수준을 산출하고 비교한 것에 따르면 종합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0.729점이며, 다음으로 0.719 점의 덴마크, 6위 스웨덴 0.678점, 8위 핀란드 0.654점으로 주로 북유럽 국가의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종합지수는 0.529점으로 34개 OECD 국가 중 21위로 나타났다. 이는 33위에 불과한 국민행복도와 28위에 불과한 복지충족도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복지수요도(10위), 경제활력도(8위), 상위권에 해당하는 재정지속도(3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다. OECD국가별 균형 비교에서 북유럽 국가 복지수준

### 1) 덴마크

- 덴마크는 5개부분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위, 종합평균 0.719점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속도는(29위)는 낮은 편이었지만, 경제활력도(12위), 복지수요도(4위), 복지충족도(1위), 국민행복도(2위) 모두 골고루 좋은 편이었다. 경제활력도 지표 중에서 실질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증가율, 1인당 GDP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고, 재정지속도의 국민부담율(47.1%)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았다.
- 그럼 덴마크가 자살률, 알코올 섭취량, 항우울제 복용량은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어째서 덴마크가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란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자살률은 OECD 34개국 중 16위, 합계출산율은 17위로 중간정도 수준이고, 출생 시 기대수명은 25위로 낮은 편이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3위로 높았고, 여가시간도 4위로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 국가투명도가 1위로 덴마크 국민이 행복한 데 크게 기여 한 것이다.

## 2) 핀란드

- 핀란드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8위, 종합 평균은 0.654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22위), 재정지속도(26위)는 각각 평균 언저리에 있거나 낮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복지수요도는(14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었고, 복지충족도(5위)도 높은 편이었다. 국민행복도는 0.709점으로 8위로 나타났다. 다른 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국민부담율(42.6%)이 핀란드의 재정지속도 순위를 낮추었으며, 높은 공공사회지출 비율(31.04%)은 복지충족도 순위를 높였다.

## 3) 대한민국

- 우리나라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21위, 종합평균은 0.529점으로 나타나, 평균에 약간 못 미쳤다. 경제활력도(8위)는 양호한편이며, 재정지속도(2위)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복수요도(10위)는 아직까지 양호한 편이지만, 복지충족도(28위)는 낮은 편에 속했다. 국민행복도는 33위로 매우 낮았다. 복지충족도가 낮은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장애연금 지출액, 공공사회지출이 낮기 때문이며, 국민행복도가 낮은 것은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공공사회지출을 늘려야 복지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다. 국민행복도를 올리려면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고 출산율도 대폭 올려야 한다.

## 4)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1위, 종합평균 0.729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3위), 재정지속도(8위), 복지수요도(5위), 복지충족도(6위) 모두 양호하였으며, 국민행복도는 0.770점으로 1위였다. 노르웨이의 국민 행복도가 높은 것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출생시 기대수명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7.6점으로 가장 높으며, 여가시간과 국가투명도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 5) 스웨덴

- 스웨덴은 5개 부문을 종합한 최종순위가 6위, 종합평균은 0.678점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도(5위)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재정지속도(21위)는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복지수요도(17위)와 복지충족도(4위)는 양호한 편에 속했고, 국민행복도는 4위로 높은 편이었다. 재정지속도가 약간 낮은 것은 국민부담율이 42.8%로 높기 때문이며, 반대로 복지충족도가 높은 것은 특히 영유아 1인당 공공사회지출액이 높기 때문이다.

### 3. 북유럽 복지국가(노르딕 모델)와 대한민국 복지수준의 차이

-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OECD(34개국) 국가의 복지수준 비요 연구에 따르면 한 나라의 복지수준 측도 요소가 크게 경제활력도,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 국민행복도인데 이들 소중 대한민국은 북유럽 국가에 비해 경제활력도와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는 크게 뒤지지 않는 반면, 복지충족도와 국민행복도는 34개국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 대한민국이 북유럽 국가수준의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국민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행복도의 요소인 자살률을 낮추고 합계출산률을 올려야 하며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1일 여가시간을 늘리고 국가투명도도 올려야 한다.
- 또한 복지충족도를 북유럽 국가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영유아 1인당 보육 공공사회지출액, 인구1인당 장애연금 지출액,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도를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따라 잡기 위해서는 지니계수와 상대빈곤율을 낮춰야 한다.
- 자살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자살 사망률은 ‘한 사회의 행복과 안녕을 나타내는 핵심적 지표’로서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며 개인적, 사회적 욕구의 미충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노인

자살율이 특히 높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높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기 싫어 죽고 싶다는 것은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이사회와 국가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자녀를 임신하여 출생하여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임신, 출산, 보육, 양육, 교육, 취업을 책임져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청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취업·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며, 삶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 1일 여가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시간당 임금은 올려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기업의 연구, 디자인, 개발에 투자를 늘려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국가 간 여가시간 차이의 결정요인으로 문화적 요인, 노동소득에 대한 높은 한계세율, 시장실패와 같은 정책과 제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개인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좋은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과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도 원인은 선택에서의 자유, 관대성, 부패인식 등이 낮기 때문이다.
- 국가투명도는 공공부문(공무원 및 정치인)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데, 종합적인 복지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때,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면 이는 복지충족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가투명도가 사회적 신뢰수준을 대리하는 매우 강력한 변수이며, 현대복지국가에서 사회적 신뢰수준은 미해결된 사회적 욕구와 관련 크다. 국가투명도는 국민의 행복에 큰 요인으로서 공무원과 정치인이 청렴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어야 국가를 신뢰하고 국민누구나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한다.

- 복지충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을 북유럽 국가수준인 GDP 대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같은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 하지 않도록 하고, 부패비리를 척결하여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복지비에 충당 하여야 한다.
- 복지수요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니계수를 낮추고 상대빈곤율도 낮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같이 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하고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대 타협을 이루어 내야 한다.

#### ○ 느낀 점 및 의정활동 접목할 사항

- 북유럽 복지국가(노르딕 모델)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비교시찰 내내 그리고 다녀와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평등하고 가장 균형적이 복지를 누리 고 가장 행복하다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복지수준과 복지내용을 알았고, 대한민국이 북유럽 국가에 비해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이를 채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러나 북유럽형 복지국가 즉, 노르딕 모델을 한국에 활용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역사적 경제적 배경도 다르고 국민성과 지리적, 자원적 여건도 다르다. 단순히 복지예산을 늘려 복지정책을 강화 하는 것으로 완성 될 일이 아니다.
-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현재의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한국형 '국민의 집' 현장이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동고동락 하고 누구도 특권 의식을 느끼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 되어야 한다. 독식하는 기득권도 없고 천대 받는 사람도 없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압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서로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 의식은 우리가 안고 있는 1% 기득권과 99% 계층의 사회, 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 기업인, 노동자, 자영업자, 장애인, 학생, 노인, 공무원, 정치인이 공감하고 느끼고 동질의식을 가져야 한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하는 의식, 동고동락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의 문제는 아니다.

- 두 번째, 분배와 성장, 성장과 분배는 복지국가의 양 수레바퀴이다 는 인식 아래 노동자와 사용자가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하청업체를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기업 성장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대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여 기업을 지탱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성장은 노동자에게 분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는 인식하에 복지비 지출은 상장의 밑거름이라는 인식 전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분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철칙으로 전 국민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변호사, 의사, 자영업자, 사교육, 월세 임대료에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양도세 증여세를 무겁게 매겨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해서 환수하여 사회 복지비 재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직종 간, 직업 간, 학력 간, 학벌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을 하든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생계와 양육이 가능하고 노후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인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대타협을 해야 한다. 노사정이 대등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을 7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정부는 중간에서 공정하게 노사 협상을 중재하고 노사 당사자 간 균형 있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법과제도를 만들고 법집행을 중립적으로 강력히 집행하여야 한다.

- 세 번째,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국민 간 국가와 국민 간, 정치지도자와 국민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하는 문화가 되어야 세금을 잘 낸다. 내가 내는 세금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공무원과 정치권이 부패하지 않고 청렴해야 신뢰받는 사회가 된다.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법과제도를 잘 지키고 세금을 잘내고 반칙이 없는 사회,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누가나 세금을 내는 것이며 속이지 않고 소득 신고할 때 믿는 사회가 된다. 복지수혜자에게도 모럴헤저더가 있으면 안 된다. 법과제도에 따라 원칙대로 누구나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편법으로 불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면 복지 저항이 일어난다. 모럴헤저더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야한다.

- 네 번째, 북유럽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 내 친구, 내 형제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야 한다. 잘 낫든 못낫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친구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나만 잘하며 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자, 승자독식이 아니라 같이 협동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누구나 노동자이다. 초등 학교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쳐야 한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 직업 현장과 어울리는 교육,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력과 독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편법과 불법을 배제하여야 누구나 균등한 삶을 살수 있다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 다섯 번째, 정치권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유럽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동체의식, 노사의 대타협,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공무원과 정치인의 청렴, 교육제도 혁신 등 할 일이 많다. 이런 이은 모두 정치권이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고 법과 제도로 만들

기 전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국민의 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리더십이 최우선이다. 국민 복지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구성 원간 논의와 협상 그리고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자 자기들만의 이익을 내어놓고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차피 대한민국 헌법 국가에서 제도마련과 정책입안 수립은 법과 제도로 최종 만들어야 하므로 대통령, 국회, 정당이 중심이 되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아야 한다. 솔선 수범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복지국가를 위한 대 타협에 동참한다. 득권을 내려놓는다.



코펜하겐 시청사



코펜하겐 시청사 내부  
(각종 행사 진행)



코펜하겐 시청사 외부  
(안데르센 동상)



오슬로 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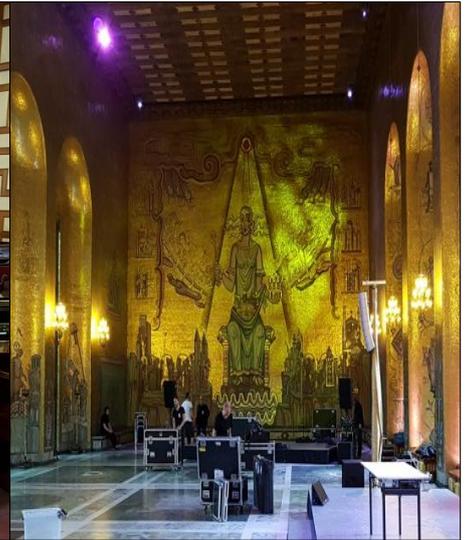
오슬로 시청사 내부  
(노벨 평화상 시상식 개최 장소)



스톡홀름 시청사



스톡홀름 시의회



스톡홀름 시청사 내부  
(노벨상 축하 연회장)

## ▣ 노르웨이 전기자동차 (친환경 분야)

### ○ 연수내용

-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전기자동차를 두 번째로 많이 구매한 국가는 인구가 500만 여명에 불과한 북유럽의 작은 나라인 노르웨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노르웨이의 전기자동차 시장은 2012년 이래 매년 10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와 수도인 오슬로 시가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보급 정책 때문에 전기자동차 제조국가도 아닌 노르웨이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전기자동차 시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우선 세제 혜택을 보면 1990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해 소비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주행세도 인하했다. 또 2000년부터는 영업용으로 구매할 경우 자동차세를 50% 낮춰주고 있고, 2001년부터는 25%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실제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은 다른 유럽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반면에 기존의 내연기관을 단 자동차는 차 값의 25%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또한 차량 무게와 배출가스,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 ○ 느낀 점 및 의정활동 접목할 사항

-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미래를 대비하는 노르웨이를 보며 노르웨이는 가히 전기자동차의 천국이라 할 만큼 각종 세제 혜택 및 보급 정책 등 편의제도와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다.
- 각종 편의 제도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버스 전용차선이었다. 자동차로 꽉 막힌 출퇴근 시간의 도로에서 일반 자동차는 꼼짝하지 못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여유있는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료 도로의 통행료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항상 차량이 분비고 있다. 버스 전용차선에 전기차도 같이 이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간구 해보아야 할 것이다.

- 이 밖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전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는 시설을 곳곳에 설치해 이용하도록 하여 일상 생활에서 전기차 충전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와 학교에서 충전하는 전기요금은 무료하고 한다.

우리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기차 충전 시설 및 공간 마련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 아파트 등의 밀집 거주지역의 전기차 충전을 위한 시설 및 공간 마련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지원해 줄 필요를 느꼈으며 심야시간 전기차를 안전하게 충전할 방법을 찾고 누진제 요금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도로 주변 전기차 충전소



공공기관 내 무료 전기차 충전소

## ▣ 덴마크 자전거 도로 (친환경 분야)

### ○ 연수내용

- 자전거 천국으로 불리는 코펜하겐은 지난 10년 동안 46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으며, 같은 기간에 자전거 이동거리는 19% 늘어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도심에서 처음 자전거 통행량이 차량 통행량을 넘어서자 코펜하겐 시는 새로운 과제로 자전거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세웠다.

- 덴마크 코펜하겐 시의 ‘2017~2025 자전거 도로 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코펜하겐 시민 절반이 통근통학수단으로 자전거를 타도록 만드는 것으로, 새로 지을 자전거 도로는 25km이고 확장할 자전거 도로는 20개 교차로와 맞물린 17km 구간이라고 한다. 이 계획을 위해 전문가의 평가와 더불어 자전거 도로를 늘 이용하는 코펜하겐 시민 1만 명의 경험을 함께 모았다고 한다.

## ○ 느낀 점 및 의정활동 접목할 사항

- 코펜하겐의 자전거에 대한 사랑은 환경보호와 교통혼잡 방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펜하겐에는 309여개에 달하는 자전거 판매점과 수리점이 있어 이로 인해 650여개의 정규 직업과 약13억 크로네(2198억 원)규모에 달하는 노동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계획을 세우며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의 평가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1만여명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실제 이용자 우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주민들 위한 정책을 펼칠 때는 내부적인 의견 제시와 수렴이 아닌,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접목 시키고자 노력해야할 것이다.
- 코펜하겐의 상징이 된 화물 자전거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발자전거 형태이지만 두 바퀴가 앞쪽에 달려 있으며 앞바퀴 사이에 어린 아이나 물건 등을 싣는 짐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 야외 활동의 자유성을 준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차로는 갈 수 없는 공원, 숲 속의 자전거 길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있어 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 친화적, 환경 친화적 삶의 양식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 또한 이 화물 자전거는 자전거 대여점에서 가장 많이 대여되는 자전거 종류로 코펜하겐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이 화물 자전거를 타고 코펜하겐을 투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도보 관광 뿐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해 자전거 관광 코스를 만들어 도보로는 한정된 거리를 넓혀 중구 곳곳을 탐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되길 바라본다.



▣ 상트페테르부르트 모비딕 물류회사 (해양·항만 분야)

○ 연수내용

- 2016년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컨테이너항은 개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15억 루블(296억원)규모의 투자를 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배~3배가 되는 규모이다. 투자는 주로 생산 장비 구입과 항만인프라 개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총 투자액 15억 루블(296억원) 중 12억 루블(237억원)은 하역 장비 구매, 자동차 전용 야적장 확장, 터미널기술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2016년에만 최대 140톤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빌 하버 크레인 2대, 40톤 운반 가능한 갠트리 컨테이너 크레인 3대 등의 장비를 새로 구비함으로써 2억8,470만 루블을 현대화 작업을 포함한 항만 인프라 개발 및 유지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 외 1억4,400만 루블은 IT 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시스템 확대에 이용하였다.

- 우리가 방문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모비딕(moby-dik) 화물 물류회사는 코틀린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테이너화물의 환적, 터미널의 역할 뿐 아니라 세관업무도하고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차량 등 물품의 효율적이고 정확 시 처리 하고 보장하기 위해 모비딕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하여 고객이 제품의 수출입을 위한 보관 및 운송에 신경을 쓰고 있다.

- 섬과 육지를 잇는 댐 및 항만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 섬은 댐건설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의 포화와 먼지 발생 등의 환경 문제로 이곳 코틀린 섬에 세워지게 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많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이 민영화가 되었다. 그 중에 소련의 항만청에 소속되었던 물류 회사들이 7개의 회사로 나뉘져 분업화 되고 경쟁 중에 있다고 했다. 국가에서 관리 및 지정으로 현대사회에서는 한계를 느끼던 차에 민영화로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로 실제 운영 실적은 상승하고 있고 한다. 요즘은 경제 위기 및 무역 제재 등으로 실적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시스템 개발 및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 ○ 느낀 점 및 의정활동 접목할 사항

- 모비딕 항만물류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환경을 생각해서 도시 부근이 아닌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먼지 등의 공해를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모습이 본받을만 했고, 설비를 계속 정비하고 투자하는 모습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
- 댐 건설에서 시작된 모비딕 화물물류회사의 직원의 80%는 섬주민이라고 한다. 실제 지역 주민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등의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 그동안 인천의 항만 물류를 책임져온 내항은 주거지 주변에 발달하였으나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물류와 주거가 충돌하게 되고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되었다. 그 결과 북항에 이어 신항, 남항을 건설 중에 있다. 늦게나마 항만 재배치를 통해 그동안 피해를 감

내해온 주민들에게 내항 개방을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중구 의원들은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비딕 물류회사 프리젠테이션 청취



모비딕 물류회사 현장 확인

## ▣ 핀란드 Allas Sea Pool (해양·항만 분야)

### ○ 연수내용

- 발트해 연안의 전통 온천과 현대의 도시 문화를 결합하여 만든 Allas Sea Pool은 헬싱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Allas Sea Pool은 이전에는 콘크리트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변모했다.
- 총 면적이 2,700m<sup>2</sup>으로 핀란드 전나무를 사용해 지어진 수영장과 사우나는 일 년 내내 개방되며, 공원과 라운지 역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 27도의 물로 채워진 대형 담수 수영장 1개와 어린이 담수 수영장 1개가 있고 정화 된 바닷물이 채워진 해수 풀도 있다. 바닷물 수영장의 온도는 실제로 바다와 함께 변한다. 핀란드 겨울철 에 본격적인 얼음 수영 체험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Allas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실내 사우나는 겨울철에도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후로 들어가 이용하며 몸을 녹일 수 있게 만들어졌다.
- Allas Sea Pool은 한 번에 약 3천 5백명을 수용 할 수 있으며, 수영장 이

외에도 레스토랑, 상점, 회의실 등이 있다. 또 연중 콘서트 및 다양한 이벤트도 상시 개최하고 있다.

#### ○ 느낀 점 및 의정활동 접목할 사항

- 165cm 깊이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 그리고 바다 수영장으로 구성 되어있다. 추운 스웨덴 날씨에 노천 수영장이 있는 것이 의아했는데 알고보니 사우나가 발달한 핀란드답게 실내에는 사우나가 있어 한 겨울에도 사우나에서 몸 녹이고 다시 수영장에 나가서 수영한다고 한다. 수영장 물도 27도를 유지해 추운 날씨에도 충분히 수영하면서 즐길 수 있어보였다.
- 수영장 이용료도 스웨덴 물가에 비해 저렴했고 야외 테라스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했다.
- 홍콩의 콘크리트 건물들이 지금은 헬싱키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서울에도 한강시민 공원에도 매년 여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도심 근교에 야외에서 수영하며 즐기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인천 중구 연안부두를 보면 이미 해양광장이 조성되어있어 이런 바닷물을 이용해 노천 수영장을 만든다면 관광 상품으로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Allas Sea Pool을 설립할 때 4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모아 지었다고 한다. 우리도 단순히 외국의 사례가 좋다고 만들기보다 용역검토 및 전문가들의 많은 자문들을 거쳐 만들어 세금 낭비를 막아야할 것이다.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세금 잡아 먹는 홍콩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Allas sea pool



Allas sea pool 무료 라운지

## ▣ 스웨덴 지방자치 (지방자치 분야)

### ○ 연수내용

- 스톡홀름 시는 약 750년의 역사의 지닌 유서깊은 도시로 옛날 건물이나 문화재는 시에서 보호하고, 노벨상 수상 축하 만찬식장으로 잘 알려진 스톡홀름 시청사는 라구날 오스트베리의 설계로 1911~1923년에 건설되었다. 시청사는 800만개의 적벽돌로 지어진 스웨덴 최고의 낭만주의 건축물로 사무실, 회의장, 행사장 등이 있다.
- 스톡홀름의 경제적으로 선진 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을 내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인구는 약 80만명이며 노인복지, 어린이보호, 가난한 사람 지원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 세금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 세금을 내고 있다. 재정은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68%, 과세, 대금, 임대료 등에서 20%, 시내에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 4%가 내고 있으며, 그 외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 스톡홀름은 지리적으로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역마다 각 정치인은 어린이보호, 장애인, 노인들을 집중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1919년 이후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였고 4년마다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80만명의 인구가 10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여, 이들은 자치구의원으로 전문의원, 회사경영의원 등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시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들로서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있는데 시장은 따로 선출하지 않은 기관통합형으로 운영하며, 이들과 전문 분야 사람과는 협조체널이 잘 가동되고 있다.
- 시의회는 시 전체 운영을 위한 선생, 간호원, 양로원에서 일하는 사람,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람 등 46,000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 특히 14개 구역이 다같이 계획이나 법률이 적용되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되었을 경우 빨리 바꾸고 있다. 평등을 중요시하며, 월급 또한 차이가 나지 않게 하며, 결정사항이 있을 때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느낀 점 및 의정활동 접목할 사항

- 스웨덴의 지방정치는 복지, 교육, 보건의료 분야에 관해 대부분의 권한과 역할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스웨덴의 지방정치는 시민과 상당히 가까이 있다고 느껴진다. 자치기구의 규모면은 한국의 시군보다는 동에 가까울 정도로 소규모이지만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원과 각종위원회 위원에 참여하는 시민이 전체 유권자의 0.5%에 이를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스웨덴 전체 공공지출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이 대부분 복지, 교육, 의료보건 관련이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전체 노동시장의 1/4을 고용하고 있어 또 다른 의미에서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스웨덴의 지방정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과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로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수의 고용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진적인 지방자치는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혀 있는 여러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 방향이 될 것이다.



▣ 노르웨이 플롬~뫼르달 산악열차 (관광 분야)

○ 연수내용

- 북유럽 명물 플롬 산악열차는 1923년 착공해 지금까지 험준한 절벽을 따라 건설된 선로 위를 달린다. 청정한 노르웨이의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플롬 산악열차는 관광객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중세 이후 척박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다. 플롬 산악열차가 운행되면서 외부로의 접근이 편리해져 주민들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20년 넘게 주민들의 발을 대신하던 플롬 산악열차가 일반에게 개방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다.

- 산악열차는 해발 2m 플롬 역에서 해발 866m 뮌르달 역을 운행하며 편도 20.20Km로 약 1시간에 걸쳐 운행된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기차임에도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데 1시간이나 소요하는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한다. 하나는 최초 목적이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 노선에는 11개나 되는 기차역이 있어 속도를 올리는 것이 어렵고 다른 하나는 터널만도 20개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지형에 건설된 탓에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시속 40Km를 넘지 못한다.

#### ○ 느낀 점 및 의정활동 접목할 사항

- 전기를 이용한 산악열차의 형태로 위에서 당기며 공중에 떠있는 케이블카만 보았던 우리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세계자연문화유산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관광자원화 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등산은 물론 차, 배, 열차, 케이블카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세계인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관광산업을 볼 수 있었다. 플롬 산악철도 내에는 한국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안내 방송과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플롬 철도에 대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 짧은 노선과 느린 속도에도 플롬 산악열차가 북유럽을 대표하는 명물 열차로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큰 것은 태초의 자연과 척박한 환경을 극복한 옛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삶을 같이 연결해 줬기 때문일 것이다.

- 북유럽을 대표하는 기차 플롬 산악열차는 비록 짧은 구간을 운행하지만 태초의 자연을 감상하기에 더 없이 좋은 노선이다. 그리고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온 주민들의 삶을 멀리서나마 마주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곳이다.



플롬~뫼르달 산악열차



산악열차 안 나라별 안내방송



보스역사



플롬에서 뫼르달 가는 길

## V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 시사점

-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자전거 사용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 자전거 천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코펜하겐시의 조사 결과에서 보면 자전거산업은 환경보호, 건강증진, 교통체증 방지 등의 이점 외에 지역경제, 사회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주고 있다.
- 덴마크에서 인기몰이하는 화물 자전거는 무겁고 느린 속도와 제한적인 코너링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환경 친화와 더불어 가족을 중시하는 덴마크 사람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
- 이러한 덴마크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버스타어가 아닌 자전거 투어로 이어져 친환경적인 관광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노르웨이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신선하게 보이는 이유는 산유국이라는 점 때문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석유 이용과 판매를 늘리는 것이 맞겠지만 국가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수력으로 거의 모든 전기를 생산하는 노르웨이와 전혀 다른 자연적 조건을 가진 우리는 인프라적인 면에서도 매우 부족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지만 전기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에 수출을 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 나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의 경쟁력 확대 및 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차츰 확대를 기대해 본다.
- 노르웨이는 대부분이 상당히 높은 지대여서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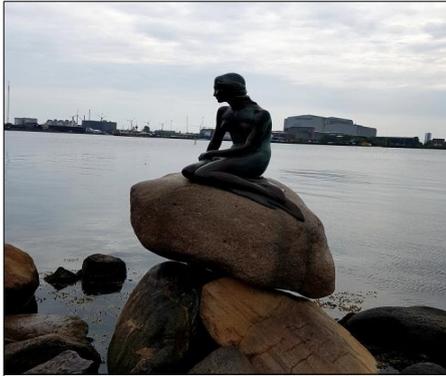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많은 곳에서 등산이나 캠핑 그리고 트레킹을 위한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플롬-뮌트랄 기차 종점에서도 이러한 트레킹 또는 등산을 위한 시설이 이루어져 있어 관광을 통한 수입의 창출 및 자연환경 보전 노력을 엿보였다.

- 관광 등의 개발을 우선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였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도 자연과의 조화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멀리서나마 마주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였다.
-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북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숲과 호수의 나라’인 스웨덴은 여느 북유럽 국가들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복지 국가로도 유명하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 뮤지컬 ‘맘마미아’의 ‘ABBA’가 스웨덴 출신이고 말괄량이 삐삐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저가형 조립식 가구 브랜드 ‘이케아’ 역시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다.
-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소중함을 배운다는 스웨덴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어서도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 리더십을 발휘한다. 국회의원도 비서가 없어 직접 손님을 접대하고 법안 준비를 혼자서 하는 모습에서 말뿐이 아닌 실제로 권력은 잠시 빌린 것으로 권위보다는 배려와 봉사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 정치인이 존경받을 수 있다는 말이 연수 전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정치인들의 생활모습을 듣고 보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느껴졌으며 우리 중구의원도 국민을 대표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핀란드**는 헬싱키 중심부에 위치한 Allas Sea Pool을 보는 순간 우리 의원 모두는 감탄하며 연안부두를 떠올렸다. 해양광장, 어식장 등 관광지역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지만 전철 역에서 거리가 잇고 낙후된 이미지로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스웨덴은 1년 내내 문화축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한다. 특히 해가 긴 여름 철에는 전국에서 2천여개의 이상의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천국이다. 놀라운 것은 축제가 벌이는 이런 도시들이 대도시가 아닌 대도시에서도 추백키로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점이다. 이런 벽지에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유치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도 중심지 위주의 관광, 문화 축제를 개최하기 보다 원도심 및 도서지역까지 고른 혜택을 주어 말뿐이 아닌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모비딕 물류회사는 아직까지 항만으로만 교역을 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다. 우리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대륙으로 가는 철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해본다. 국가차원의 전략과 외교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도 들것으로 생각이 든다. 너무 짧은 기간에 추진하기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경쟁력과 경제성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 관련사진



인어공주상



코펜하겐 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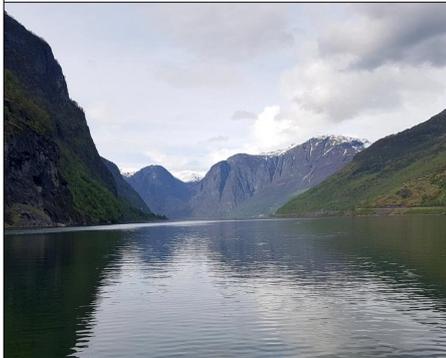
아말리엔보르 궁전



오슬로 항구



빙하박물관



송내 피요르드



플롬 산악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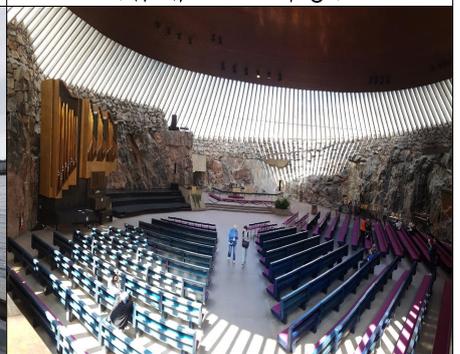
베르겐 한자동맹 시절 건물  
(유네스코 지정)



베르겐 어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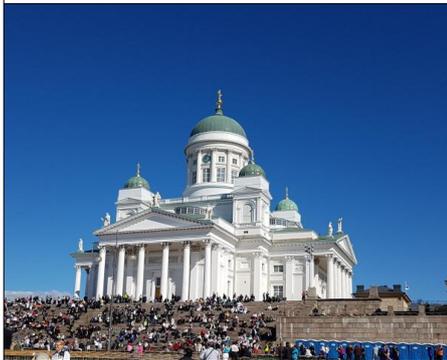
스톡홀름 시청사 앞



암석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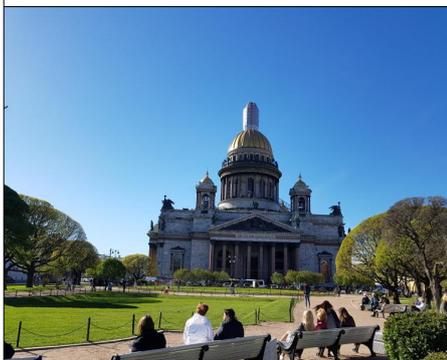
핀란드 벚꽃축제



네프스키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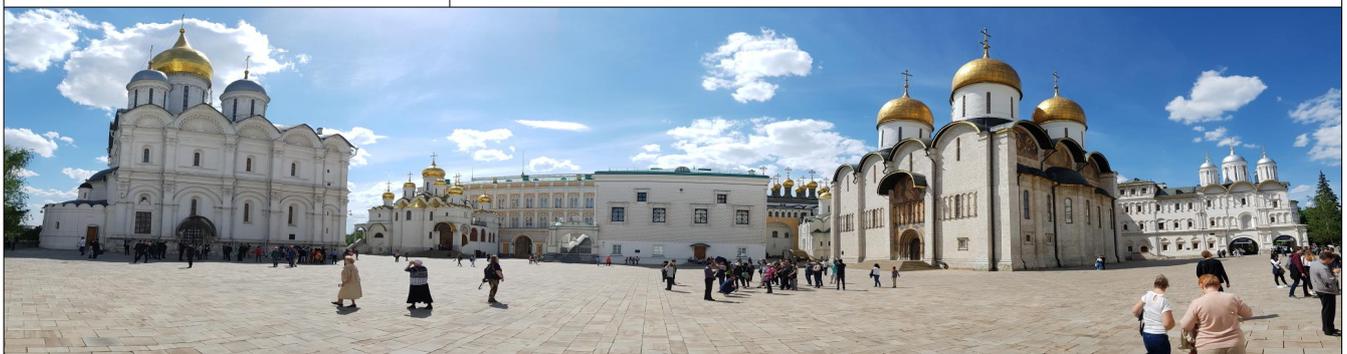
탈린 구시가지(유네스코 지정)



성이삭성당



겨울궁전



크레믈린 궁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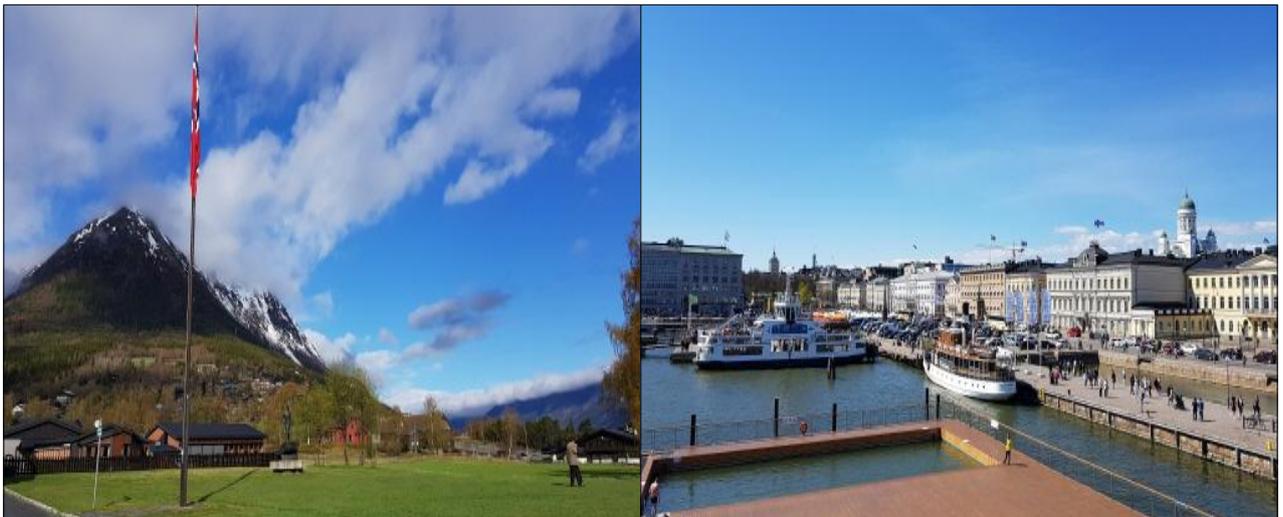
**VI 연수후기 및 정책제안 (의원별)**

▣ 중구의회 김철홍 의장

○ 명색이 선진지 비교시찰인데 추렴을 해서라도 배울만한 곳을 찾자는 의견이 힘을 얻어 복지가 최고 수준이라는 북유럽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동료의원들의 말로 실감할 수 있었다. 복지와 삶의 만족도가 최고라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실제로 본 북유럽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우선 출산율이 바닥인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훌륭한 교육복지 시스템은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도 그들의 자연보호 정책과 사상은 나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다. 나 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중구가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평소 트램의 도입과 태양광 발전, 하이브리드 차량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공기오염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터라 더 부러움이 컸던 것 같다.



○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던 때를 회고해보면, 하루 종일 버스 몇 대 보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공기는 엄청 깨끗했고 교과서에는 맑은 가을 하늘을 ‘푸른 물이 똑똑 떨어지는 듯하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였는데 오늘날은 산업의 발달로 삶은 윤택해졌지만 자연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미세먼지와 황사로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훼손되었다. 그런 만큼 북유럽의 깨끗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그들의 현명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교통이 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노르웨이는 배기가스에 따른 자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공기 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트램이나 전기차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지원정책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소비세를 면세하고, 주행세 인하, 영업용 전기차 구매시 50%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하던 25%의 부가가치세 역시 2001년부터 전기차에는 일절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는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며 유료도로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전기차 우대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아울러 충전 시스템도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일반충전소가 6200여개, 급속충전소가 230여개 운영되고 있다. 산유국임에도 눈앞의 이익을 좇지 않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배기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려는 그들의 정책에 경의를 표할 뿐이다.



-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모비딕항을 방문하였다. 다만 모비딕항은 아직 영세하고 모든 기술면에서 한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송에 강점이 있어 주거와 물류의 충돌로 인한 고충을 안고 사는 우리로서는 부러움이 앞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원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후손들에게 미세먼지와 황사의 고통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자연은 우리가 살아가고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래서 후손들이 깨끗한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중구의회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장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매년 해외비교시찰을 다닌다. 우리 인천중구회 의원들은 2017 올해 비교시찰은 어디를 갈까 논의 끝에 북유럽을 다녀오기로 했다. 북유럽은 복지국가로서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고 국민들의 행복도는 수년간 세계 1위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로서 지방의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 싶은 지역이다.
- 대한민국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상임 대표는 2009년에 북유럽을 방문하여 핀란드 교육, 스웨덴 복지·노동, 노르웨이 성평등 분야의 제도와 이를 실현하는 정치·행정·사회적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정의당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덴마크 라스무센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성공적 경제발전과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 그래서 우리 중구의원들은 북유럽 복지국가 복지수준은 어떠한가, 노르딕 모델은 어떻게 형성 되었으며, 한국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적 요건은 무엇인가가 궁금했다. 특히 진보정당 운동을 16년 동안 활동해온 본 의원은 꼭 북유럽을 가보고 싶었던 차에 이번 의회 해외비교시찰을 북유럽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조 조직률을 올리고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북유럽이 현재의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은 70%가 넘는 노조 조직율과 복지국가에 대한 심념이 있는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 틀을 닦았다. 노조와 사용자와 정부가 대타협을 하였고 진보정당이 집권한 정부가 중심을 잡았다. 대한민국은 노조조직율이 10%에 불과하다. 노조 조직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 보수정권은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부정적으로 행정을 펼쳐왔다. 노조가 위축되고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노사가 대등하게 단체

교섭을 할 수 없었다. 노조가 있어도 이런 지경인데 노조가 없는 기업에는 노동자가 반민주적, 비인간적 대우로 노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자가 애국자이며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인식하에 노조의 조직률을 70% 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 국민적 대타협으로 GDP대비 30%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리면 다행이나 과거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진보정당 집권 없이는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능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이후 지속적으로 민주개혁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노르딕 모델을 대한민국에 활용할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북유럽형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중립적 행정을 펼치는 정부가 지탱되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복지국가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노조와 진보정당 민주개혁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서서히 복지국가로 가자. 내가 속한 정당이 집권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자고 다른 나라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다.
- 북유럽 비교시찰 다녀온 후 1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제257회 제1차 정례회도 개최되고 해서 서둘러 보고서를 작성 한다고 했지만 부족하고 아쉽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복지실태에 대해서 현지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 외에 보고서나 실제 경험이 묻어난 도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나 내용이 촌촌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든다.
- 그러나 이번 해외비교시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읽은 참고 도서를 통해 복지국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이거나 고민 하게 계기로 삼는 것을 성과로 본다.
- 북유럽형 복지국가가 만능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목표로 가야 할 지점은 아닌가 한다. 북유럽형 복지국가에 대한 공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현장 정치를 겪으면서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복지국가, 행복국가 대한민국 설계하여 나갈 것이다. 보고서 작성에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동료의원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는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북유럽 현지에서 듣고 보고 느낀 점과 정의당 정책담당으로부터 협조 받은 자료와 북유럽 복지국가 관련 서적을 참조하여 작성 하였다.



## ▣ 중구의회 이정재 의원

### ○ 노천카페 규제완화

- 유럽에 어디를 가도 테라스 영업이 성행 중이다, 테라스 영업은 상업행위 이전에 식당 문화이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임에도 왜 음식점의 테라스营业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가?
- 고객들은 날씨가 좋을 때는 실내가 아닌 실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테라스를 선호하는 편이다. 답답한 실내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 우리나라는 일정 기준의 보행 폭만 확보하면 시내 중심가에서도 테라스를 열 수 있는 뉴욕이나 파리 등의 선진 도시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최근 서울 부산 경기 등 2016년부터 옥외 테라스 영업 허용하고 있다.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장소와 시설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곳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



### ○ 트램의 활성화

-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트램이 매우 활성화 돼 있다. 트램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전용궤도를 설치하거나 지하철 같은 역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건설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 또한 도로에서 바로 탑승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등이 필요가 없어 시설 유지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 때 계단을 이용하거나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지하철과 달리 승객들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고, 몸을 움직이기 힘든 노인이나 다른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트램은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로 교통수단 중에서 트램이 도로의 자가용을 줄이는 효과가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 이번 선진지 견학에서 본 핀란드에서 본 일부 개방형 트램은 도심 관광 상품으로도 적합합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교통이 불편한 연안부두에 기존 철로를 활용하여 수인선과 연계를 한다면 편의성 시간절약 등 연안부두 상권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자전거 대여

- 북유럽은 좁고 눈이 많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와 공공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서유럽처럼 굳이 도로가 좁고 복잡하다는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았다. 잘사는 나라임에도 비싼 교통비와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선진 국민들의 좋은 생각 때문인 것 같았다. 자전거 도로의 폭이 인도의 폭보다 넓은 곳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만큼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 되어있다는 증거이다. 우리 중구 원도심 처럼 도로 폭이 좁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관광지역에 적합한 시설이며 영종 용유와 같이 평지가 많고 면적이 넓으며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은 전기자전거를 활성화 한다면 환경과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광고를 하는 쓰레기통

- 관광지에 쌓여만 가는 소형 쓰레기들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 원두커피 컵 외 다수의 비슷한 용기들. 하지만 많은 쓰레기통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예산..
- 이번 에스토니아 여행에서 그 답을 찾았다. 도로변 가로등에 키높이의 박스형 쓰레기통들이 붙어 있었다. 쓰레기통에는 홍보 광고가 붙어 있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쓰레기통 관리자가 쓰레기통에 기업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받아서 쓰레기통을 관리 처리하는 것이었다. 쓰레기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키높이 박스형에 큰 쓰레기는 넣지 못하게 하였으며 쓰레기통 아랫부분으로 쓰레기를 회수할 수 있게 만들어 회수비용이 많이 들지 않게 하였다. 우리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 사우나와 수영장의 만남

- 바다수영과 사우나를 동시에.. 알라스 사우나 ^^ 헬싱키 해수변에 있는 사우나로 2016년에 개장했다고 한다. 실내에서 사우나를 하다가 더우면 밖으로 나와서 해수욕을 즐긴다. 해수풀과 담수풀이 함께 있어서 좋았다. 건물 옥상은 노천카페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관광객들로 만원이었다. 여름에만 해수욕을 하는 나의 고정관념을 일시에 바꾸어 놓았다. 연안부두나 월미도 또는 내항이 본격 개발되면 꼭 해야 하는 4계절용 필수 사업이라 생각이 들었다.



○ 각종 판매 매대

- 차량을 이용한 노천카페나, 각종 판매용 매대가 좁은 공간에서도 잘 활용되도록 설계되어서 모든 것이 협소한 중구 관광지 내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보인다.



### ○ 마지막으로

-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매 시간 사업자의 눈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벤치마킹 하게 된다. 어떤 행위나 시설에 제약이나 제한을 두지 말고 사용 가능성에 눈을 돌려서 보고, 개선한다면 매사에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자의 사업시행 걸림들을 제거해주는 것이 행정관청의 본연의 임무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의원들의 선진지 견학이었지만 집행부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민행정에 적극 활용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한국사회보건연구원(2016), OECD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연구
- 메리 힐슨(2010), 노르딕 모델(북유럽 국가의 꿈과 현실)
- 말레네 뤼달(2016), 덴마크사람들 처럼
- 박노자 외 6인(2013), (노르웨이의 한국인이 말하는)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스웨덴 편)
- 이병문(2006), 핀란드 들여다보기